



## 분홍문의 기적

강정연 글 · 김정은 그림

반양장 | 212쪽 | 9,500원 | 출간일: 2016년 4월 29일

ISBN 978-89-491-2172-7 74800 / 978-89-491-7999-5(세트)

### 엄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선물 같은 72시간

황금도깨비상 수상 작가 강정연이 들려주는  
울고 웃고 화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기적 같은 이야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72시간을 가지게 된 ‘분홍 문’ 사람들의 이야기. 황금도깨비상 수상 작가 강정연의 신작 동화 『분홍 문의 기적』이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강정연은 황금도깨비상을 받은 『건방진 도도 군』을 통해 독창적인 동물 캐릭터의 우화를 보여 주며 “빈 구석을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이야기”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중에서)라는 평을 들었으며, 환상의 짝꿍 두 소녀의 우정을 그린 『슬플 땀 매운 떡볶이』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통해 특유의 활기와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작가다. 아동문학평론가 김서정은 “삶에 주눅 들지 않는 기쁜 상상력, 거침없이 줄달음질쳐 나가는 서사,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대화가 강정연의 글에 생기와 속도감을 불어넣으며 그의 글에 주목하게 만든다.”(『동화는 나의 놀이터』-강정연론, 《열린어린이》중에서)고 평하기도 했다.

1초 뒤에도 유리잔이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지,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와장창 깨져 있을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1초 후 깨질지도 모를 유리잔과 같은 이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 것밖엔 없지 않을까. 『작가의 말』중에서

이번 신작 『분홍 문의 기적』은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난 후 엉망진창으로 살던 아빠 박진정 씨와 아들 박항기가 날개 달린 엄지 공주 같은 작은 모습으로 돌아온 엄마와 72시간을 함께하는, 마음 찌릿하고 간절한 판타지가 담긴 동화다. 작가는 ‘예쁜 유리잔처럼 빛나던 삶’이 한순간 거짓말처럼 깨져 버린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 내며 위로를 건네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 등장인물들을 3인칭으로 부르는 독특한 화법과 한 발짝 떨어져 심리를 때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묘사들이 이야기를 한층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한

다. 한 장면 장면이 사람들의 일상을 촘촘하게 포착한 김정은의 삽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가 잔잔하고 포근하게 다가온다.

### ● **엄마, 그리고 내 아내 김지나 씨...**

####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72시간이 주어졌다**

####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이 깃든 판타지**

*이상한 건 날이 갈수록 슬픔은 얼어지는데 원망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두 남자의 모든 것이었던*

*김지나 씨가 한순간 사라져 버렸는데.*

‘분홍 문’은 평소에 분홍색이라면 꼼짝하게 좋아하던 엄마의 흔적이다. 유난한 그 분홍색 덕분에 이들 가족은 동네에서 ‘분홍 문’ 사람들로 불린다. 두부를 사러 나갔던 엄마가 그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행복하던 분홍 문 가족의 삶은 와장창 깨져 버렸다. 엄마, 그리고 아내가 사라지고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빠 박진정 씨와 아들 박향기는 여전히 울컥울컥 화인지 뭉치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핑계로 박진정 씨는 늘 술 한잔 기울이느라 모자가게는 잘 찾가지도 않고, 아들 박향기는 게임에 코 박으며 학교생활은 뒷전이다.

*감 씨가 목에 걸리면 까치가 찾아온단다. 양심 있는 까치라면 선물을 가지고 오겠지. 그동안 너한테 얻어 먹은 게 있으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향기를 아들로 착각하고 막무가내로 감을 사 오라며 불쑥불쑥 집으로 전화를 건다. 이번에도 꼼짝없이 할머니 집에 갔던 날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정말로 부자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적우적 감을 먹다 감 씨가 목에 걸려 버리고 만다.

아무래도 거슬리는 감 씨 때문에 부자는 근처에 생긴 ‘몽 이비인후과’를 찾아간다. 그런데 사람 한 명 없는 수상한 병원의 파마머리 괴짜 의사는 두 사람을 반가워하며 치료는커녕 감 씨가 몸에 저절로 흡수될 거라는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놀랄 일이 벌어진다. 웬 까치 한 마리가 집 앞에서 기다리듯 앉아 있는 것! 향기는 까치가 남기고 간 씨앗인지 모를 무엇을 죽은 화분에 심는데, 다음 날 자라난 열매가 툭, 깨지며 엄마가 나타난다.

내레이션을 하듯 특유의 유머가 담긴 문체는 둘만 남겨진 아빠와 아들의 일상을 덤덤하게 그리는 듯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몰들어 공감하게 한다. 또한 엄마를 잃은 향기뿐만 아니라, 아내를 잃은 아빠의 마음, 미션을 해내기 위해 다시 돌아온 엄마의 마음이 각자의 입장에서 고루 그려져, 따로 그리고 다 같이 더없는 아픔을 이겨 내는 가족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 **세 번의 저녁, 세 번의 점심, 세 번의 아침**

#### **“무엇을 하기엔 무척이나 짧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눈물 나게 귀중한 시간”**

*“아앗!”*

*“거봐, 꿈 아니라고 했지?”*

엄지 공주 김지나 씨가 씩 웃었다.

“지금은 6시 42분. 앞으로 71시간 18분 남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고,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을까?’ 작가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간절한 이들이 ‘간절한 감 씨’를 삼켜서 얻게 된 사흘. 정말 특별한 시간이라서, 분홍 문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정말 특별한 일로 채우기로 한다.

같이 밥을 해 먹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장을 보고, 잔소리하며 웃고 떠들며 얼굴을 마주 보는 일들. 그러한 일상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분홍 문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야말로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엄마 김지나 씨가 없었던 1년 4개월 동안 집 안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졌고, 아빠와 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일쑤였다. 지상에 내려온 시간 동안 미션을 해결해야만 천사가 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엄마는 남편과 아들을 단호한 태도로 부지런히 움직이게 한다.

언제까지 내 핑계 댈 거야?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은 없어.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지.

이건 내가 저세상 가 보고 나서야 알게 된 진리야.

미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아빠와 아들은 자신들만 떠난 사람을 그리워했나 서운하기도 하고 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고 싶기도 하지만, 투덜거리면서도 조금씩 변화에 따르기 시작한다. 사실 두 남자를 대하는 김지나 씨의 말과 행동은 모두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할, 다시 자신들끼리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할 아빠와 아들에 대한 응원인 셈이다. 그리고 『분홍 문의 기적』은 다름 아닌 그 응원과 위로를 받아 다시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살아 낼 새로운 일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김지나 씨의 미션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다시 이별을 맞은 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나누었을까?

## ● 차례

- |                               |                  |
|-------------------------------|------------------|
| 1. ‘분홍 문’에는 누가 살까?            | 13. 셋이어도 둘처럼     |
| 2. 박향기의 하루                    | 14. 옆집 벨을 누르시오   |
| 3. 박진정 씨의 하루                  | 15. 엄지 공주의 참관수업  |
| 4. 변명                         | 16. 지나 모자        |
| 5. 그날                         | 17. 나복순 여사의 닭백숙  |
| 6. 그녀의 신청곡                    | 18. 몽 천사         |
| 7. 몽 이비인후과                    | 19. 건배           |
| 8. 까치가 날아오다                   | 20. 괜찮아          |
| 9. 손바닥 위의 그녀                  | 21. 미션 수행        |
| 10. 세 번의 저녁, 세 번의 아침, 세 번의 점심 | 22.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 |
| 11. 김지나 씨가 달라졌다               | 작가의 말            |
| 12. 분홍 문 대청소                  |                  |

## ● 작가 소개

**강정연** 200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누렁이 자살하다」가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제18회 계몽아동문학상과 2005년 안테르센 그림자 상을 받았으며, 『건방진 도도 군』으로 2007년 황금도깨비상을 받았다. 한국 동화에서 손꼽히는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주는 작품들을 써냈다. 지은 책으로 『바빠 가족』, 『건방진 도도 군』, 『정마로의 정말 억울한 사연』, 『재미나면 안 잡아먹지』, 『콩닥콩닥 짝 바꾸는 날』, 『슬플 땐 매운 떡볶이』, 『초록 눈 꼬끼리』,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진짜 영웅이 되는 법』, 『이웃집 통구』, 『무지개 떡 괴물』, 동시집 『접접한 젓가락』 등이 있다.

**김정은** 대학에서 일러스트를 전공하고 2010년 한국안테르센상 미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그린 책으로 『여름이 반짝』, 『광명을 찾아서』, 『얼굴 없는 기념사진』, 『나의 첫 인생 수업-아빠와 나는 17가지 공감 대화』 등이 있다.

담당: 편집부 장은혜(02-515-2000 내선 315, jeh@bir.co.kr)  
홍보부 황수연(02-515-2000 내선 310, hwang@bir.co.kr)